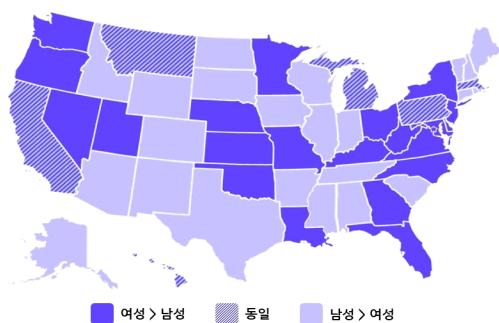


## 요약

미국 전체 평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운전 성향 및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 산정이 이슈가 됨. 현재 미국은 7개 주에서 차등 산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델라웨어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제출됨. 한편 유럽은 2012년 이후 차등 산정을 금지하고 있음. 향후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집단적 특성보다는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텔레매틱스 및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운전능력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따라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운전 성향 및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 산정이 이슈가 됨<sup>1)</sup>
  - 성별에 따른 능력 차이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중 하나로 여성의 공간지각능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운전능력 또한 여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음
  - 2021년 기준 미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6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연령과 주에 따라 최대 7.6%의 차이를 나타냄
  -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심각한 사고의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9배 높게 나타남<sup>2)</sup>
  - 운전 성향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주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차등 산정에 대한 계리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그림 1〉 미국 주별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 비교



자료: The Zebra(2021. 12. 6), "Women pay up to \$118 more than men for car insurance"

〈그림 2〉 미국 내 사망사고 운전자의 성별



자료: III, "Facts+Statistics: Highway safety"

1) The Zebra(2021. 12. 6), "Women pay up to \$118 more than men for car insurance"  
2)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What determines the price of an auto insurance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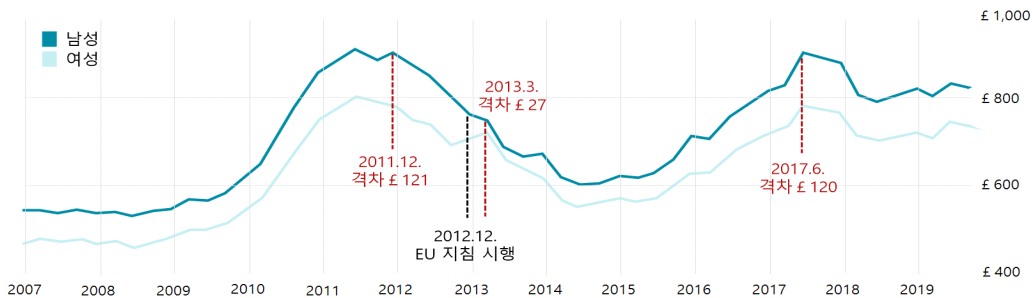
○ 현재 미국은 7개 주<sup>3)</sup>에서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을 금지하고 있으며,<sup>4)</sup> 최근 델라웨어에서도 보험 당국의 연구결과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법안(Senate Bill 231)이 상원에 제출되었음

- 자동차보험료의 차등 산정을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성별 차이가 사고 위험과의 통계적 관련성이 없으며, 자동차보험 요율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임
- 델라웨어 보험당국(Delaware Insurance Department) 및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보고서<sup>5)</sup>에 따르면 델라웨어에서도 대다수 주요 보험회사들이 여성에게 평균 8~9%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고서는 델라웨어의 여성 거주자 및 운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사고 발생 비율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등 산정은 그 차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반해 보험회사들은 보고서의 방법론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43개 주가 성별을 자동차보험료 산정요인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산정요인이 다양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함을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함

○ 유럽의 경우 2012년 이후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 지침 발표 이후 영국의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이는 지침 시행 직후(£27)에 비해 최대 4.4배(£120)까지 격차가 벌어짐

- 유럽의 경우 2012년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Test-Achats 판결 이후 성별, 연령 등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요인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sup>6)</sup>
- EU의 지침 시행 직후 영국 내 성별 간 평균 자동차보험료의 격차는 27파운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최대 4.4배까지 차이가 발생함<sup>7)</sup>
  - 법률 위반 및 과실 여부, 보험금 청구 빈도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주된 원인임

〈그림 3〉 영국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격차



자료: <https://www.confused.com/car-insurance/gender-gap-100-drivers>

○ 향후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집단적 특성보다는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텔레매틱스 및 AI 활용이 가능하며 운전자행태기반보험(Behavior-Based Insurance; BBI) 시장의 확대가 전망됨<sup>8)</sup>

3) 캘리포니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총 7개 주임

4) 정인영(2019. 5. 27), 「미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성별 정보 이용 금지」, 보험연구원

5) Delaware Insurance Department and CFA(2022. 3. 1), "Gender Disparities in Auto Insurance Pricing"

6) European Commission(2012. 12. 20), "Factsheet: EU rules on gender-neutral pricing in insurance"

7) <https://www.confused.com/car-insurance/gender-gap-100-drivers>

8) 안소영(2020. 3. 30), 「운전행태 기반 자동차보험(BBI)」, 보험연구원